

세배는커녕 노모 손도 못 잡고...유리창 사이 '한숨의 면회'

코로나19 여파 요양시설에 부모님 모신 자녀들 설 시름

"엄마, 엄마, 수화기 좀 들어봐." 8일 오후 2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 병원측이 가족들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 창문 앞에 만든 비접촉 면회장 주변은 잘 들리지 않는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려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엄마, 나 좀 봐봐." 자녀가 그토록 부르는데도,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했는지 뒤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수화기를 할머니의 귀에 대줬다. 하지만 엄마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말 좀 해봐, 엄마 나 좀 봐." 자녀는 같은 말만 계속 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어느새 울음이 섞여 나왔다.

자녀는 "손 좀 잡고 얼굴 한 번 만져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애가 탄다"며 울먹였다. 수십여 분 뒤 엄마를 대운 휠체어는 유리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다.

자식들은 휠체어에 탄 부모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설을 앞두고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셔둔 자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줄 모르면서 이번 설에도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직접 찾아 뵙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80대 노모를 요양원에 모신 직장인 김현수(60·가명)씨도 설을 앞두고 자신이 불효자가 된 듯한 기분을 지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면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어머니의 손을 마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접 찾아보면 항상 얼굴을 쓰다듬고 손

간접면회소에서 인터폰으로 대화 "가까운 곳 모시고 자주 뵈려 했는데 감염 우려에 얼굴 뵙기도 어려워"

광주·전남 3만6000여명 입원 시설 종사자들 주 2회 의무검사 미용실도 1년 넘게 못가고 힘든 생활

을 잡아주시곤 했는데, 어머니의 손을 언제 잡아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통화를 하곤 하지만 뿔뿔한 어머니 표정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자주 뵙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요양원을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선택했는데, 마치 어머니를 감옥에 맡긴 것 마냥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말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49곳의 요양병원(2만 6138명)과 310곳의 요양원(1만 313명)에 3만 6451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이 70세가 넘는 고령자들로, 지난해 7월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 때문에 이번 설에도 자녀들과 만날 수 없게 됐다.

자녀들 입장에서 지난해 8월, 20일 남짓(8월 3-22일) 요양시설에 들어가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7개월 가까이 요양시설 밖에 설치된 면회소를 통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인터폰으로만 이야기를 나눴을



설명절을 앞둔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비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뿐이다.

부모님 손을 잡는 것조차 못하다보니 얼굴을 만져보거나 명절을 손수 장만한 음식을 맛보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명절을 앞두고 요양시설을 찾아 '유리창 너머' 상봉의 아쉬움을 나누는 가족들이 적지 않다. 일부 자녀들은 함께 있지 못하는 죄스런 마음에 먹을 것을 한 가득 싸와 건네주기도 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도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없는 형편이다.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정모(여·61)씨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다보니 마음놓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면서 "미용실에 갈 수 없어 머리를 자르지 않은 지도 1년이 넘었다. 지난 주 환갑을 맞았지만 남동생이 제안한 부부 동반 식사자리마저 거절했다"고 말했다.

했다.

정씨는 "요양원 종사자들은 매일 분 단위로 동선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요양원에서 출퇴근 외에는 이동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문자를 매일 보내온다"면서 "감염 우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 명절 앞두고 장을 보는 것조차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감자탕 신화' 이바둑 경영 악화로 회생 신청

직영·가맹 매장 200여개 운영 코로나19 여파 영업 부진 심화

'이바둑감자탕'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이바둑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바둑은 지난 5일 광주지법 파산 1부에 법원 회생절차 신청서를 냈다.

이바둑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진도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이바둑은 '조선화로', '조선갈비실록', '강촌식당' 등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기준 임직원 229명을 둔 매출액 843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이바둑은 지난 1993년 설립된 축산 유통업체

'에덴축산'이 모태로, 지난 1999년 이바둑감자탕으로 출발해 전국에 92여개의 이바둑감자탕 직영·가맹 매장을 운영하면서 성장해왔다. 감자탕 이외의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합치면 총 200여개에 달한다.

광주에는 수완지구, 상무지구 등 10개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전남에도 목포·여수·진도·나주 등 8개 지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미국과 중국 상하이에 진출하는가 하면, 5289㎡(1600평) 규모의 직영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법원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그대로인 반면,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영업수익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며 식자재 공급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호대기하던 운전자 의식 잃어 119 출동해 병원 옮겨지만 숨겨

8일 오전 7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전초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서부소방 119 구조대가 출동, 운전자 A(53)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등은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신호대기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기준보다 높게 책정 광주도시공사, 입주민들에 차액 물어줄 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

광주도시공사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책정해 분양했다가 입주민들에게 차액을 물어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씨 등 아파트 입주민 487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광주도시공사가 지은 다사로운 아파트에 살다가 임대주택기간 5년이 끝난 뒤 살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도시공사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관련법이 정한 가격보다 높다"며 30억 3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가격(이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시공사의 분양가격이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관련 규정들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넘어서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세대별 산정가격의 경우 1억9000여만원~1억 7000여만원으로 감가상각비(1180여만~1160여만원)를 뺀 상한가격은 9700여만원~9500여만원인데, 도시공사의 분양가격이 이같은 상한가격을 초과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싹 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 인	면 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 인	면 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 천 포레스트 덕 산 스프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 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 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 알(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